

수능특강 70쪽



선상탄 | 박인로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느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진목(勵氣臚目)¹⁾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벼보니
벼람 조친 황운(黃雲)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선상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輊氏)³⁾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빈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밋기
어닉 사이(四夷) 엇불넌고
무슴 일 하려 하야 빈 못기를 비롯하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ㄴ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느다
어즈버 켜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빈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빈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디도록 드
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⁴⁾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열키나 어디 너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
썸고
놉디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하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⁵⁾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닉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밋골
제일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ㄴ흔 어부생애(漁父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돈힐넌고

(중략)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주(海醜) 흉모(兇謀)⁶⁾에
만고수(萬古羞)를 안고 이서

백분(百分)에 혼 가지도 못 시서 브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ㅣ 되야 이서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피웁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닉 각(刻)에 이즐넌고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늘고 병든~흔 빗칠쇠] 병선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느낀
전운, [선상에 배회하며~길우느다] 배를 만든 현원씨를 원망함,
[어즈버~전혀 업게 삼길렀다] 오늘날의 왜를 있게 한 진시황을
원망함, [두어라~어디 부쳐 돈힐넌고]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
고 싶은 마음, [시시로 멀이 드러~어닉 각에 이즐넌고] 임금에 대한
걱정과 우국충정

[현대어 풀이]

(임금께서) 이 늘고 병든 몸을 수군(水軍)으로 보내시기에, 을사년 여
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지에 병든 깊다고 앉아 있으라.
한 자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기운을 떨치
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
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
일세.

배 위에 이리저리 거닐며 예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어리
석고 미친 듯한 생각에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
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가 많
은 만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던가? 장구(長久)한 세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하는구나.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왜국을 만들지
않았던들,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
하기 어려운 도적(賊)을 남겨 두어서,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
까지 미치게 하였는가? 장생 불사한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

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이나 살았는가? (그러나 진시황도) 남과 같이 죽어 갔으니, (사람들을 보낸 일이) 유익한 줄 모르겠다. 아, 생각하니 서불의 우리들이 매우 심하다. 신하가 되어서 남의 나라로 도망을 하는 것인가. 신선을 못 만났거든 쉬 돌아왔더라면, 수군인 나의 근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는가? 속절없는 시비는 땀겨져 던져 두자. 곰곰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이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 맑고 바다 넓다한들 무슨 흥이 저절로 났을 것이며, 정승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경치 좋은 강산에 부평같이 떠다니는 어부 생활이 한 조각 작은 배가 아니면 무엇에 의탁하여 다니겠는가?

<중략>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는구나.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 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라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천추를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 모시지 못하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이야 어느 시각인들 잊었을 것인가?

[어휘 풀이]

1) 여기진목 - 기운을 돌우고 눈을 부릅뜬. 2) 황운 - 누런 빛깔의 구름. 전쟁을 비유함. 3) 현원씨 -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전하는 전설의 인물. 4) 난당적 - 왜적을 가리킴. 5) 잠사각오 -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 6) 해추 흉모 - 왜적의 음흉한 모략.



<선상상단>

☑ 시구 풀이

•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닉실시/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내려오니

- (임금께서) 이 늘고 병든 몸을 수군(水軍)으로 보내시기에,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드러낸 표현

- 선조 38년 진동영: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이 깊다 안자실라

- 변방의 중요한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겠는가?

- 변방을 지키는 군인의 자세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우국충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데 올라

- 한 자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 여기진목(勵氣瞋目)¹⁾ 하야 대마도(對馬島)를 구버보니

-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뜨 대마도를 굽어보니

• 바람 조친 황운(黃雲)²⁾은 원근(遠近)에 사혁 있고

-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고

- '황운(黃雲)'은 '전쟁'을 비유하는 말로, 임진왜란이 끝났음에도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새

-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빗일새.

• 선상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 배 위에 이리저리 거닐며 예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 시적 상황을 제시, 화자의 생각이 이어짐을 알리는 표지 역할

•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轅氏)³⁾를 애드노라

- 어리석고 미친 듯한 생각에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 배가 아니었으면 왜적이 조선을 어떻게 침범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하며 배를 만든 현원씨를 원망하고 있다.

•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서니

- 큰 바다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 현원씨를 원망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넓고 큰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배가 없었다면 오랑캐가 넘보지 못했을 것임.

• 진실로 빙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너 사이(四夷) 엇볼넌고

- 참으로 배가 없었다면 풍파가 이는 바다 만 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엇볼 것인가?

• 무슴 일 흐려 하야 빙 못기를 비롯호고

-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던가?

• 만세천추(萬世千秋)에 7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노다

- 장구(長久)한 세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 백성의 원한을 조장하는구나.

• 어즈버 췌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 배를 만든 현원씨에 대한 원망이 왜(倭)가 생기게 했던 진시황에게 옮겨가는 구절이다. 즉, 왜가 있었기에 그들이 조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왜를 만든 진시황을 원망하고 있다.

- 처음에는 배를 만든 현원씨를 원망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배가 있다고 해도 왜적이 없었으면 임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테니 왜적을 만든 진시황이 잘못이라는 지은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다.

• 빙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빙 절로 나올넌가

- 비록 배가 있었더라도 왜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 **늑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리도록 **드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 누구의 말을 곧이듣고, 젊은 남녀를 그토록 많이 데려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왜적)을 남겨 두어서
- **통분(痛憤)**은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맞나다
 -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하였는가?
 -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한 수치가 중국에 다 미친다
-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얻어 닉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넘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견고
 - 장생불사한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만년이나 살았는가?
- **늑되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은 줄 모르로다
 - (그러나 진시황도) 남과 같이 죽어 갔으니, (사람들을 보낸 일이) 유익한 줄을 모르겠다.
-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 아, 생각하니 서불(진시황의 명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떠난 술객[術客])의 무리들이 매우 심하다.
- **인신(人臣)**이 되어서 **망명(亡命)**도 **하는** 것가
 - 신하가 되어서 남의 나라로 도망을 하는 것인가?
-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 신선을 만나 불로초를 얻는 일을 못 하였거든 얼른 돌아왔더라면
 - 서불 일행이 일본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일본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왜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 **주사**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 (섬나라 오랑캐의 씨가 퍼지지 않아) 통주사(나)의 이 근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으로소니
 -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 하겠는가?
 -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고통을 겪은 것이 배를 만든 현원씨와 진시황 때문이라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 속절없는 시비는 팽개쳐 던져 두자.
- **시상전환**
-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교야
 - 곰곰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이다.
-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원** **줄도** **모르로다**
 -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다.
-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맞이하더라도 배를 타고 즐겨야 그 감흥이 더욱 일어남을 노래한 부분이다. '장

한'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 배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다. 배가 있다고 해서 모두 나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장한의 고사와 어부의 생활을 들어 주장하는 부분이다.
-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닉**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맛골**
 -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 맑고 바다 넓다 한들, 무슨 흥이 저절로 났을 것이며, 정승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 **제일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못** **어부생애(漁父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돈힐**노고
 - 경치 좋은 강산에 부평같이 떠다니는 어부 생활이 한 조각 작은 배가 아니면 무엇에 의탁하여 다니겠는가?
 - 자연경관을 즐길에 있어서 배가 있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풍류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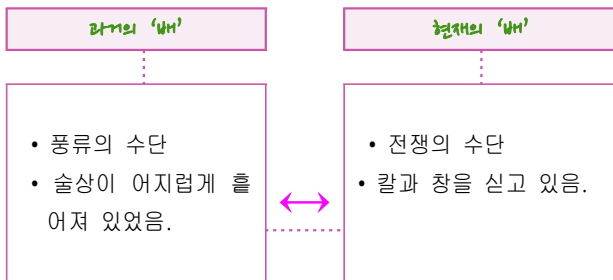
<중략>

-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보라**보며
 -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 시대를 슬퍼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쪽에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작가의 우국충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는다
 -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는구나.
 -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라마는
-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주(海醜)** **흉모(兇謀)**에 **만고수(萬古羞)**를 **안고** **이셔**
 -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천추를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서,
- **백분(百分)**에 **못** **가지도** **못** **시쳐** **보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 **되야** **이셔**다가
 -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피옴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닉** **각(刻)**에 **이**즐넵고
 -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 모시지 못하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이야 어느 시각인들 잊었을 것인가?
 - 곤궁과 영달, 즉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임금을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늙는다 해도 충성심은 잊을 수 없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특징

- 갈래: 전쟁가사
- 성격: 우국적, 비판적, 기원적
- 민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룸
-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드러남
- 현장성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
- 한자성어와 고사의 인용이 많음

✓ '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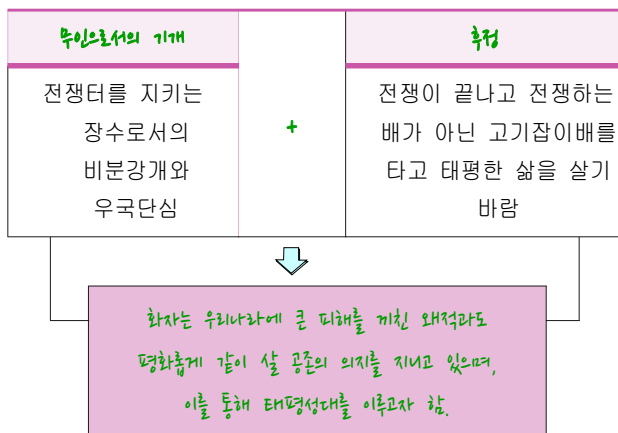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자연의 풍류를 즐겼으나,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배를 타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음에 주목함

↓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바람을 '전선 타던 우리들도 고기잡이배를 타고 태평성대를 누리자'라는 말로 나타냄

✓ 화자의 평화에 대한 염원



✓ 과사인용

현원씨에 대한 원망	고대 중국에서 문명을 일으켜 발전시킨 현원씨가 배를 만든 것을 원망함.
진시황에 대한 원망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왜에 동남동녀(童男童女) 삼천 명을 보냄으로써 왜적이 생겨나게 만든 진시황을 원망함.
서불에 대한 원망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자 군신(君臣) 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일 본 땅에 머물러 왜적이 생겨나게 한 서불을 원망함.

→ 왜적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은과적으로 형상화함

사제갈(死籍葛)도 생중달(生中達)을 멀리 쫓고,	제갈공명을 두려워하던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갔으나,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세운 요책에 따라 의젓하게 가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는 고사
발 업손 손빈(孫賓)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손빈이 비록 방연의 배신으로 발이 잘렸으나, 후에 뛰어난 전략으로 방연을 잡아 죽였다는 고사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리들 못 할 것가.	제갈공명이 남만왕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고사

→ 화자는 죽은 제갈공명과 발 없는 손빈에 비하면 자신은 몸이 성하니, 왜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즉 화자가 높고 명은 처지에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우국충정으로 왜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강한 기상과 기개를 고사를 인용하여 강조한 것이다.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주제: 전쟁에 대한 혐오와 태평성대에 대한 회구
- 해제: 이 작품은 정유재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전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를 배경으로 작가가 통주사로 근무하며 지은 가사이다. 왜적에 대한 비분강개와 우국충정,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연군의 정, 그리고 태평성대에 대한 간절한 회구가 잘 나타나 있다.

• 구성

[늘고 병든~흔 빗칠외] 병선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느낀 전운
[선상에 배회한 며칠유근다] 배를 만든 현원씨를 원망함.
[어저느~전혀 쉽게 삼킬것다] 오늘날의 왜를 잊게 한 진시황을 원망함.
[두어라~어디] 복쳐 든 할근고]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
[시시로 멀이 드러~어느] 각어 이줄넌고] 임금에 대한 걱정과 우국충정